

중국 「巫山一段雲」 詞牌의 한국에서의 수용 양상 연구: 8영체 중심으로*

김 현 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문과 교수

백 연 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문과 박사수료

[국문초록]

중국 사패 중 「巫山一段雲」은 많이 填詞된 사패가 아니었으나 한국에 유입된 이후 고려·조선에 걸쳐 90여명의 문인들이 500여 수의 많은 작품을 지을 정도로 크게 유행하였다. 또한, 한국의 「무산일단운」의 형식은 절반 이상이 聯章體 八詠의 寫景詞라는 것은 한국에서의 수용에 있어 독특한 양상이다. 중국의 「무산일단운」에는 8영체 형식이 없으며, 前蜀의 毛文錫에 의해 처음 무산 12봉을 제재로 하는 詞가 지어진 이후 李珣에 의해 연장사의 형태로 발전하였고, 柳永에 의해 5영체로 이어지며, 마침내 趙孟頫에 의해 형식적으로 12영체를 갖추며 제재면에서 사경사가 되었다. 연장체는 敦煌民間詞 중 大曲에서 보이는 형식으로서 이후 중국 민간문학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한국의 이재현은 조맹부와 교유의 관계였고, 조맹부의 「무산일단운」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재현의 사는 중국의 것과 달리 두 개의 組로 이루어진 8영체였다. 한국에 최초로 나타난 8영체로 된 이재현의 「무산일단운」은 이후 고려와 조선의 문인들 사이에서 매우 유행하여 형식면에서는 8영체 뿐만 아니라 非 8영체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며, 제재면에 있어서도 사경사에서 시작하여 이후 다양한 제재를 택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한국의 「무산일단운」을 연구대상으로, 중국 「무산일단운」 사패가 한국에서 수용될 때, 8영체의 형식으로 발전하는 양상에 주목하고 8영체에 해당하는 작품들의 형식과 제재면에서 보여지는 양상을 중심으로 고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찰해 보았다. 비 8영체 작품 수 또한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巫山一段雲, 聯章體, 8영체, 韓國詞]

I. 서론

I.1. 연구목적

중국의 詞는 민간에서 발생 후 당대에 그 성격을 형성하며 오대와 宋의 문인들에 의해 중국 문학사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이러한 사가 한국에서는 주목받지 못하였는데, 먼저 사회 체제적으로는 科擧에서 사가 아닌 시로 평가하였고, 음악적으로는 胡樂을 바탕으로 한 사가 고려와 조선인에게는 생소하고 정서에 맞지 않아 작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사가 고려 말에 유입되어 조선 문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 문인의 시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량이 시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사가 시문집에 함께 실려 있어 사를 독립적인 한 장르로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말에 유입된 중국사는 한국에서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데, 그중 많은 문인들이 「무산일단운」 詞牌에 填詞하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작품들은 연장체 형식으로 발전되어 8영체의 비중이 매우 높은 양상을 보인다.

「巫山」은 중국 四川省 일대의 산들로서 아래 열두 봉우리가 있고, 楚나라 懷王이 낮잠이 든 사이에 꿈속에서 아름다운 신녀를 만났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중국사 문학에 있어 「巫山一段雲」은 다른 사패에 비해 자주 쓰이지는 않은 사패였다.¹⁾ 반면,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有目無詞(제목만 알 수 있고 작품이 없음)포함 약 84여명의 작가와 541수의 「무산일단운」이 전해지고 있다.²⁾

1) 한 예로 『詞譜簡編』는 ‘비교적 통용되었던 138개의 사패와 약 450수의 저명한 당송의 사’의 사보에 관한 해설서인데, 이 책에는 사패 「무산일단운」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楊文生, 6).

2) 王進明의 『朝鮮詞文學創新與民族特色』(2017)에서는 「巫山一段雲」에 관해 52명의 작가와 총 400여 수의 작품으로 통계를 내었다. 본 연구의 통계는 류기수 『全高麗』

그렇다면, 중국에서 그다지 유행하지 못했던 「무산일단운」이 詞문학이 흥하지 않았던 한국에서 8영의 연장체라는 독특한 형식을 이루며 유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1.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한국의 중국사문학 유입에 관한 연구의 시작은 차주환(1979)의 「한중사문학의 비교연구 - 한국 최초의 사작품을 중심으로」를 시작으로 백정희(1995) 「한국사문학 소고 -고려의 사-」, 이승매(2006) 『韓國詞文學通論』의 연구가 있었다. 류기수(1993) 「중국과 한국의 「무산일단운」 사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무산일단운」 작품을 시대별로 볼 수 있어 중국에서 「무산일단운」 사패가 형성된 시기 및 한국으로 유입된 시기를 정리해 볼 수 있으며, 2015년 논문 「明清시기 「무산일단운」의 형식고찰」은 明清에 지어진 「무산일단운」의 작품이 정리되어 있다. 이 외에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연구된 김현주의 논문들은 中國詞 문학이 고려 사인 이곡, 정포, 이규보, 이승휴, 이제현, 민사평, 성석린에 의해 수용되는 양상에 관한 연구들 중심으로 중국사의 고려 시대에 수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중국에서도 최근 「무산일단운」을 비롯한 중국사의 한국 유입에 관해 관심이 부쩍 제고되면서 많은 학술논문이 발표되고 있는데, 특히 王進明(2017)의 『朝鮮詞文學創新與民族特色』은 중국의 연구 성과를 집약해놓은 서적으로 중국의 한국사문학에 대한 관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연구는 고려 이제현이 중국 문인 趙孟頫(1254-1322)와 교유관계였다는 측면을 부각한 연구가 많으며, 동시대의 다른 사인들 및 그 이후의 발전양상에 관한 세부적 양상에 관한 연구 결과는 미흡하다. 근래 출판된 류기수(2019)의 『全高麗朝鮮詞』는 한국문학에 수록된 고려와 조선의 사 작품들을 시기와 작가별로 정리하여 한국의 사작품을 한 권으로 편집한 것이다.

비교문학의 방법론 중 ‘영향연구’는 하나의 문학 또는 문학사조가 다른 나라의 문학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으로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 전개했던 비교문학의 이론 중 하나이다(劉介民, 181-209). 한 나라의 문학이 다른 나라의 문학에 영향을 줄 때, 완전한 모방의 형태로 전해진다면 그것은 영향연구라고 볼 수 없다. 수신자가 영향을 주는 수여자의 문학 형태를 수신자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재해

朝鮮詞』(2019)에 수록된 작가와 작품을 근거로 하였다.

석하거나 특유의 방식을 통해 고유한 형태로 발전해 갈 때 영향연구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과는 다른 양상으로 발전되는 한국 「무산일단운」의 형식 중 가장 먼저 전해지고 가장 많은 작품 수를 보이는 8영체를 대상으로 그 형식과 체재 측면에서의 발전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고려조선사』 내의 「무산일단운」 약 540여 수를 체재상 8영체와 비 8영체로 나누고, 본 고에서는 8영체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중국에서 지어지기 시작한 「巫山一段雲」이 한국으로 유입된 후 어떠한 형식의 변화를 거쳐 한국만의 고유한 형식으로 발전되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II. 「무산일단운」 사패의 형성과 발전

II.1. 「무산일단운」 사패의 형성

II.1.1. 「무산일단운」 사패의 연원

『詞調名辭典』(吳藕汀 외, 261-262)중 사패 「무산일단운」의 설명은 유사한 사패명 「巫山一片雲」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무산일편운」

(1) 즉 「菩薩蠻」이다. 『詞律』 4권 목록 註解에서 “「菩薩蠻」은 또 「巫山一片雲」이라고 하는데, 巫山一段雲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填詞明解』 1권에서 『北夢瑣言』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宣宗이 「菩薩蠻」 가사를 즐겨 불렀는데 일명 「巫山一片雲」이다”라고 하였다.

(2) 즉 「巫山一段雲」이다. 明의 陳霆의 詞의 이름이 「巫山一段雲」이었고 『水南詞』에 보인다.

「巫山一片雲」

(一) 卽菩薩蠻。『詞律』卷四目錄註云：“菩薩蠻又名巫山一片雲，與巫山一段雲無涉。”

『填詞明解』卷一引『北夢瑣言』云：“宣宗愛唱菩薩蠻歌詞，一名巫山一片雲”

(二) 卽巫山一段雲。明陳霆詞名巫山一段雲，見『水南詞』。

「무산일단운」

또는 「巫山一片雲」, 「金鼎一溪雲」이라고 하며, 唐의 『教坊曲』 명이다. 이 조는 평운, 평측운 의 두 가지 체제가 있으며, 평운은 『花間集』 5권의 五代의 毛文錫의 詞에서 보이고 平仄韻의 압체는 『全唐詩·附詞』 의 唐의 李曄의 詞에서 보인다.

「巫山一段雲」

又名:巫山一片雲、金鼎一溪雲。唐教坊曲名。此調有平韻、平仄韻間叶兩體。平韻體見『花間集』卷五五代毛文錫詞。平仄韻間押體見『全唐詩·附詞』唐李曄詞。

「무산일단운」은 「무산일편운」 또는 「금정일계운」이라고도 불리며, 당의 『교방곡』 명에 보인다. 그러나 만약 「무산일편운」이 「보살만」과 같은 사패일 경우는 「무산일단운」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用韻에 있어 평운, 평측운의 두 가지 체제가 있으며 평운체의 경우 『화간집』 5권 내 모문석의 사에서, 그리고 평측운체일 경우 『전당시·부사』 내 당대 이엽의 사에서 보인다.

II.1.2. 「무산일단운」 사패의 유형

清 王奕清 등이 편찬한 『詞譜』 卷六(王奕清 외, 4-5)에는 세 종류의 「巫山一段雲」이 실려 있으며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詞譜』에서는 A식과 B식의 대표적 예로 唐 昭宗(李曄, 867-904)의 사를 실었고, C식의 예로는 모문석의 사를 실고 있다. 또한, 潘慎의 『詞律辭典』은 위의 세 가지 형태 이외에도 金 王喆(1112-1170)의 쌍조 46자 전후단 각 사구 삼평운의 또 다른 別體를 수록하고 있다(류기수, 2015:4-5).

<표1> 「무산일단운」의 형식

형식	출 처	형 식	대표 작품
A	詞譜	쌍조 46字 전단 사구 삼평운 후단 사구 양측운, 양평운(환운)의 정체	唐 昭宗(李曄)의 사
B	詞譜	쌍조 46字 A식과 같은 형식이나 전단의 평운을 그대로 사용한 별체	
C	詞譜	쌍조 44字 전후단 각 사구 삼평운 별체	毛文錫의 사
D	詞律辭典	쌍조 46字 전후단 각 사구 삼평운 별체	金 王喆의 사

한국 「무산일단운」은 모두 <표 1> 중 모문석의 사를 모델로 하는 C식의 형태를 보이는 독특한 양상을 보이며, 이는 44자의 형식으로 기타 형식과 구별이 매우 용이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산일단운」 형식은 중국에서 어떠한 발전 단계를 보였는지, 특히 언제부터 연장사의 형태가 나타난 것인지 형식적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2. 「무산일단운」 사패의 발전

중국에서 ‘巫山’이 문학에 처음 소재로 쓰인 것은 賦의 형태였는데, 전국시대 宋玉의 「高唐賦」(蕭統編, 李善注, 265)와 「神女賦」(蕭統編, 李善注, 267) 있고, 楚의 懷王이 일찍이 巫山 神女와 함께 연회에서 만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중국 「무산일단운」의 발전에 관해 중국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 성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한국에서 「무산일단운」이 수용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형식의 변화양상에 주목하여 고찰할 것이다.

II.2.1. 「무산일단운」 사패의 형식 변화

무산의 열두 봉우리를 제재로 한 최초의 사 작품은 五代 前蜀의 모문석의 「무산일단운」이며(王進明, 2017:70), 같은 시기에 李珣과 歐陽炯의 「무산일단운」이 있다. 이후 北宋의 柳永도 「무산일단운」을 지었는데 李珣의 두 수에서 발전된 쌍조 5수의 연장체 형식을 보인다(王進明, 2019:94). 또한, 宋부터 원래 제재인 ‘巫山’을 벗어나 사패에 따라 依聲填詞한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연장체의 모습과 의성전사의 표현방법은 宋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어 元 趙孟頫의 「무산일단운」은 쌍조의 12수까지 발전된 형태를 보이는데, 이것이 고려 이제현의 「무산일단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작품이다. 조맹부의 12수의 연장체 형식 「무산일단운」은 ‘巫峽’의 유명하고 수려한 봉우리 12개 ‘淨壇峰’, ‘登龍峰’, ‘松鶴峰’, ‘上升峰’, ‘朝雲峰’, ‘集仙峰’, ‘望霞峰’, ‘栖鳳峰’, ‘翠屏峰’, ‘聚鶴峰’, ‘望泉峰’, ‘起雲峰’을 대상으로 서정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고대신화의 전통적 소재와 남녀의 연정을 그려내었다. 明清 「무산일단운」은 작품 수가 다른 사패에 비해 많지 않았으나 꾸준히 지어졌다.³⁾

3) 류기수(199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明의 詞 268종을 모아둔 趙尊猷의 『明詞匯刊』

II.2.2. 연장체 「무산일단운」

중국에서 형식상 변화를 거둔 후 「무산일단운」이 한국으로 유입될 때 가장 큰 특징은 연장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중 8영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 12, 16체 등의 여러 형식이 보인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무산일단운」의 연장체 사경사의 형식은 元의 조맹부의 「무산일단운」 12수를 효시로 본다.⁴⁾ 이후 연장체 사경사의 계승은 明의 5수뿐이며 淸의 연장체 사경사 「무산일단운」은 존재하지 않고, 「무산일단운」 사패와 다른 여러 사패를 함께 사용한 경우가 보인다. (류기수, 1993:17). 이에 반해 고려와 조선의 「무산일단운」은 대다수 연장체 사경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몇몇 작품의 題序에서 차운하였다는 글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고려조선사』에 수록한 한국 「무산일단운」작가 84명에 작품 541수(제목만 있고 사가 없는 작품을 포함, 작품을 확인할 수 없는 사 제외)를 대상으로 체제분석을 시도한바, 형식면에서 모두 연장체였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연장체는 8영체였다. 8영체 이외에 10, 12, 16영체 등의 형식은 일찍이 唐의 敦煌民間詞에서 보인 연장체⁵⁾로 불려진 체제와 유사하다. 이러한 연장체 사경사의 특징이 뚜렷한 고려 조선의 「무산일단운」의 체제 특성을 『전고려조선사』에 수록한 모든 「무산일단운」작품들을 대상으로 형식별로 살펴보자.

① 8영체의 한국 「무산일단운」 사패

에는작가 20명의 28수, 이후 출간된 『全明詞』에는 작가 33인 44수, 『全明詞補編』에 작가 4인 4수가 수록 되어있고 모두 C식이다. 淸의 작품에는 『全淸詞·順康卷』에서 94인의 124수, 『全淸詞·順康卷補編』에서 24인의 29수, 『全淸詞·雍乾卷』에서 58인의 70수, 그리고 『淸名家詞』에서 5인의 6수 「무산일단운」이 있다.

4) 이 점은 王進明의 『朝鮮詞文學創新與民族特色』 및 「巫山一段雲」을 연구한 논문에서 모두 같은 입장을 보이며 본고도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자 한다(王進明, 70-71 참고).

5) 任二北(1954)에 따르면, 聯章(연장)이란 같은 곡류를 쓰는 몇 개가 서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 한 투(套)의 연장에서 句法이 동일한 것이라 하였다. 연장의 종류에는 보통연장, 화성연장, 정격연장이 있다. 보통연장은 가사의 의미가 한 수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많은 편폭들로 연결된 것이며, 정격연장은 「五更轉」, 「十二時」, 「百歲篇」, 「十恩德」 등과 같이 곡의 수(辭數) 또는 단락수(段數)에 제한이 있는 것이다. 정격연장은 보통연장에 비해 형식에 있어 일정한 章數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임의로 길어지거나 짧아지지 않는다(김현주, 백연주, 8-9 참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8영체 형식의 「무산일단운」을 지은 작가와 작품은 다음과 같다. 이제현의 「무산일단운·소상팔경」, 「무산일단운·송도팔경」, 李穀의 「무산일단운·蔚州八景」, 鄭誦의 「무산일단운·蔚州八景」, 陳義貴의 「무산일단운·淸安八景」, 權近의 「무산일단운·新都八景」, 權宇의 「무산일단운·新都八景」, 權相一의 「무산일단운」, 權宗洛의 「무산일단운·葛山八景」, 金養根의 「무산일단운·龜亭八景」, 效錦溪의 「무산일단운·集勝亭」, 金夏九의 「무산일단운·新居八詠」, 金佺의 「무산일단운·靑溪堂八詠」, 南景義의 「무산일단운·瀟湘八景」, 南龍萬의 「무산일단운·瀟湘八景」, 柳升鉉의 「무산일단운·瓢溪八景」, 朴載華의 「무산일단운·瀟湘八景」, 徐居正의 「무산일단운·瀟湘八景」, 孫侗의 「무산일단운·蔚山八詠」, 申光漢의 「무산일단운·瀟湘八詠」, 申晉運의 「무산일단운·田園樂八景」, 申昌朝의 「무산일단운·八景」, 申楫의 「무산일단운·關東八景」, 魚世謙의 「무산일단운」, 吳宏默의 「무산일단운·鶴城八景」, 李光胤의 「무산일단운·秋月堂八詠」, 李秀榮의 「무산일단운·瀟湘八景」, 李承召의 「무산일단운·瀟湘八景」, 李養吾의 「무산일단운·瀟湘八景」, 李鎭宅의 「무산일단운·關東八景」, 李衡祥의 「무산일단운·閒中八詠」, 李弘有의 「무산일단운·冶溪八詠」, 鄭沈의 「무산일단운·蘆溪八詠」, 鄭榮邦의 「무산일단운·芝圃八景」, 丁希孟의 「무산일단운·龍山精舍」, 崔演의 「무산일단운·定州迎春堂八詠」, 黃胤錫의 「무산일단운·北樓八詠」, 黃應奎의 「무산일단운·夏寒亭八詠」, 柳稷의 「무산일단운·芝圃八景」, 이외에 有目無詞(제목만 있고 사 작품이 없는 경우)로 鄭道傳, 成石璣, 申德觀, 金用謙의 「무산일단운」이 있다.

② 非8영체의 한국 「무산일단운」 사패

쌍조 1수는 연장체는 아니지만, 작품의 수가 적지 않으므로 기타 체제로 분류하였다. 1수 구성 형식에는 高聖謙의 「무산일단운·達觀臺」, 權焯의 「무산일단운·碧梧桐」, 金圻의 「무산일단운·朴淵瀑布」, 金佺의 「무산일단운·春懷詞」, 柳道洙의 「무산일단운·初夏卽事」, 法宗의 「무산일단운·金剛山」, 徐思選의 「무산일단운·昌黎文」, 申光漢의 「무산일단운·故山秋思」, 李介立의 「무산일단운·贈別韓石峰濩」, 李渠의 「무산일단운·秋夜有感」, 李晚松의 「무산일단운·春山雨」, 李殷相의 「무산일단운·示諸崑季」, 林權의 「무산일단운·燈夕」, 洪貴達의 「무산일단운·次朴良甫」, 李婷의 「무산일단운·貢春奉潮」 과 「무산일단

운·廣德朝嵐」, 吳守盈의 「巫山一段雲」, 李衡祥의 「무산일단운·壽孫玄叟」, 그리고 林梯, 鄭梯, 崔演, 韓濩, 黃命河의 것이 있다.

2수 구성 형식에는 柳潛의 「무산일단운」, 朴元甲의 「무산일단운·矗石樓」, 魚世謙의 「무산일단운·榆關驛二首」, 曹繼明의 「무산일단운·幽居」가 있다.

10수 구성 형식에는 姜希孟의 「무산일단운·瀟湘八景」, 權應仁의 「무산일단운·萬里帖」, 李洪男의 「무산일단운·公山十景」, 朴承任의 「무산일단운·集勝亭十景」, 孫起陽의 「무산일단운·竹院十景」, 崔演의 「무산일단운·題集勝亭十詠」, 黃俊良의 「무산일단운·集勝亭十詠」이 있다.

이외의 형식으로 安益濟의 「무산일단운」, 李光胤의 「무산일단운·晉州淸心軒題詠」, 李周禎의 「무산일단운·騰雲山十二詠」, 李衡祥의 「무산일단운·次華陰處士四首」, 朴應衡의 「무산일단운·題寂滅庵」이 있고, 제목만 있는 것으로 華陰處士와 郭燾坤의 것이 있다.

이상으로 『전고려조선사』에 수록된 한국 「무산일단운」 들을 단조를 포함하여 연장체 별로 나누어 분류해 보았다. 영체별로 볼 때 8영체 연장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0영체가 많았다. 또한 8영체 구식에 있어 모두 「무산일단운」 구식 중 C식인 '5,5,7,5의 쌍조'임을 알 수 있다.

III. 「무산일단운」 사패의 한국 수용 양상

앞서 한국 「무산일단운」이 모두 8영체 C식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중국에서 「무산일단운」 사패 중 보이지 않던 8영체가 고려와 조선에서 유행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장은 먼저 한국 「무산일단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중국의 조맹부의 「무산일단운」의 형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1. 「무산일단운」 사패의 유입 양상

III.1.1. 조맹부와 이제현의 「무산일단운」

고려 말 이제현의 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는 元의 조맹부(1254-1322)의 「무산일단운」이다. 고려의 이제현은 그의 나이 28세에 元으로 忠宣王

(1275-1325)과 함께 가게 되었고, 元에 머무른 약 10년(1314-1323)동안 충선왕과 친분이 있었던 조맹부, 張養浩 등의 문인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이제현은 28세, 조맹부는 64세였으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문인의 우의는 매우 깊었다(李寶龍, 170-173). 조맹부의 「무산일단운」은 앞서 언급된 모문석과 이순의 「무산일단운」을 계승하여, 고대신화를 바탕으로 각 봉우리의 수려함을 표현하였으며, ‘淨壇峰’, ‘登龍峰’, ‘松鶴峰’, ‘上升峰’, ‘朝雲峰’, ‘集仙峰’, ‘望霞峰’, ‘栖鳳峰’, ‘翠屏峰’, ‘聚鶴峰’, ‘望泉峰’, ‘起雲峰’로 나누어 읊었다. 이제현 또한 소상의 팔경을 묘사하며 사의 제목을 각각 ‘平沙落鴈’, ‘遠浦歸帆’, ‘瀟湘夜雨’, ‘洞庭秋月’, ‘江天暮雪’, ‘煙寺暮鐘’, ‘山市晴嵐’, ‘漁村落照’로 둔 후 두 수씩 구성하여 총 두 개의 組로 구성된 연장사 16首를 지었다. 이제현이 조맹부와 각별한 교류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과 두 작품의 체제 구성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제현의 「무산일단운」은 조맹부에게 일정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의 「무산일단운」은 대부분이 8영체이고 조맹부의 형식 12수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이러한 이제현의 8영체 형식을 효시로 한국 문인들은 차용하기 시작하였고, 「무산일단운」은 한국에 유입된 후 8영체 형식으로 발전해 나가며 독특한 양상을 낳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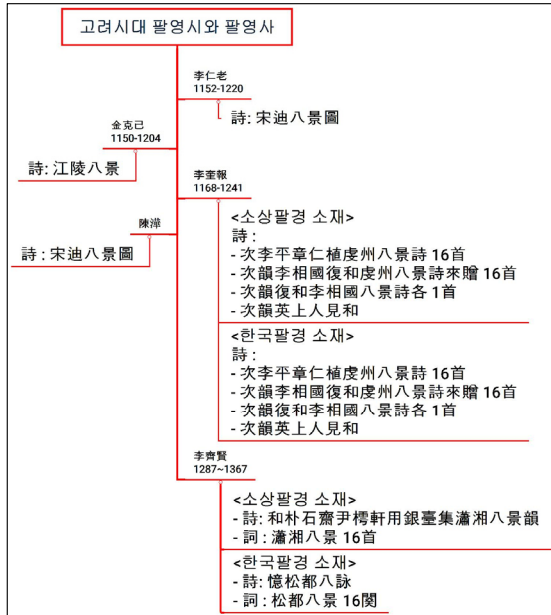
III.1.2. 한국의 팔경 문화

그렇다면, 한국에서 유독 8영체가 성행했던 이유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팔경시 창작의 주 계층과 성행에 관하여 이상균은 우리나라의 팔경 문화의 유행은 관동지역의 景勝을 대상으로 시작되고 활성화되었다고 한다(이상균, 11-12). 여기서 만들어진 관동팔경은 금강산과 더불어 유람의 명소가 되었다. 금강산을 유람하는 사람들 대부분 관동팔경을 함께 유람하였고, 국내의 팔경이 유행하고 유람 명소로 부각되어 팔경을 유람하고자 하는 당시 사람들의 열망은 관동팔경의 사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이규보는 관동의 경치를 칭송하고 한 번 보았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였다(이상균, 28-29). 따라서 한국 「무산일단운」 작품 중 형식면에서 8영체가 많은 것은 중국의 「무산일단운」이 한국에 유입되던 시기에 이미 한국에는 팔경 문화가 매우 유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의 팔경 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8영체의 「무

산일단운」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당시 고려 시가 문학에서 8영체 문학이 이미 유행하고 있었고, 그 바탕 위에 한국의 「무산일단운」은 8영체의 사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 시가 문학에서 8영체의 시작을 짚어본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高麗史』에는 明宗(1170-1197)이 문신들에게 ‘瀟湘八景’을 주제로 시를 읊게 하였고, 李光弼에게 ‘瀟湘八景圖’를 그리게 했다는 내용이 있다.⁶⁾ 아래 <그림1>은 한국 문학에 최초로 보이는 팔영시와 팔영사의 수용 시기(김건곤, 142)⁷⁾ 를 李齊賢의 사 ‘瀟湘八景’과 ‘松都八景’이 작사 된 시기까지 그림으로 비교한 것이다.

<그림 1> 한국 팔영시와 팔영사의 출현 시기



<그림 1>⁸⁾은 고려시대에 유행한 팔영 문화가 문학에 반영되어 시와 사에서

6) 李寧傳 “光弼亦以畫見寵於明宗王命文臣賦瀟湘八景仍寫爲圖”(高麗史』122卷, 「列傳 35」).
7) 본 그림은 김건곤(2015)의 연구 「고려 문인들의 팔경 문학 향유에 대하여」에 근거하여 8영체의 시작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각각 8영체의 작품이 등장한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팔영시는 이인로의 ‘송적팔경도9)’에서 이미 창작되기 시작하였고, 8영체의 시는 그보다 백여 년 후의 이제현의 「무산일단운·소상팔경」과 「무산일단운·송도팔경」이 그 시효이다.

이인로의 시 「송적팔경도」는 8수로 이루어진 7언 율시로 각 수의 제목이 ‘平沙落雁’, ‘遠浦歸帆’, ‘江天暮雪’, ‘山市晴嵐’, ‘洞庭秋月’, ‘瀟湘夜雨’, ‘煙寺晚鍾’, ‘漁村落照’이다. 이것은 이제현의 「무산일단운·소상팔경」과 구성 순서는 다르지만 일치한다. 이제현의 「무산일단운·소상팔경」은 형식면에서 중국 조맹부의 「무산일단운·소상팔경」의 영향을 받아 사 문학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한국 이인로의 시 「송적팔경도」에서 그 소재를 착안했을 것이다. 이제현이元到 머무른 기간(1314-1323)은 <그림1>에 나타난 한국의 시 「송적팔경도」나 「소상팔경도」보다 훨씬 뒤이다. 이제현이 고려와 원을 자주 왕래하면서 한국의 팔경 문화를 기반으로 중국 사패 「무산일단운」에 전사한 것이다.

한국에서 최초 사의 출현은 현재까지 고려사의 기록에 나타난 바에 따라 고려 13대 왕 宣宗(1083~1094) 때로 본다. 이후睿宗이 조금씩 사를 지었다고 하나 전해지지 않는다(차주환, 1982:239, 241-242). 이후 이규보를 시작으로 문인들이 사를 지었으며, 이제현의 「무산일단운」 이후 본격적이 사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현의 작품은 중국 조맹부의 12수의 형태를 따르지 않고, 2조 16수, 즉 1조가 8수로 구성된 형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8수의 형태는 당시 ‘관동팔경’을 비롯하여 유람 명소를 대상으로 정경을 보며 시를 읊었던 문인들의 八詠문

8) 陳溥의 출생연도는 기록에 없으나 그의 문집에 있는 「梅湖公小傳」에 의하면 1200년에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대략 1180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 宋의 畫家인 宋迪이 ‘瀟湘八景圖’를 그렸는데, 작가(이인로)가 그림에다 시를 쓴 것이다.

平沙落雁	水遠天長日脚斜。隨陽征雁下汀沙。行行點破秋空碧。低拂黃蘆動雪花。
遠浦歸帆	渡頭煙樹碧童童。十幅編蒲萬里風。玉脰銀蕝秋正美。故牽歸興向江東。
江天暮雪	雪意嬌多着水遲。千林遠影已離離。蓑翁未識天將暮。誤道東風柳絮時。
山市晴嵐	朝日微昇疊嶂寒。浮嵐細細引輕紈。林間出沒幾多屋。天際有無何處山。
洞庭秋月	雲端激激黃金餅。霜後溶溶碧玉濤。欲識夜深風露重。倚船漁父一肩高。
瀟湘夜雨	一帶滄波兩岸秋。風吹細雨洒歸舟。夜來泊近江邊竹。葉葉寒聲摠是愁。
煙寺晚鍾	千回石徑白雲封。巖樹蒼蒼晚色濃。知有蓮坊藏翠壁。好風吹落一聲鍾。
漁村落照	草屋半依垂柳岸。板橋橫斷白蘋汀。日斜愈覺江山勝。萬頃紅浮數點青。

(한국고전종합DB)

화의 기저 위에 한국 「무산일단운」 도 한국에서 8영체로 형식화되며 비로소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팔영사 「무산일단운」 의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III.2. 「무산일단운」 사패의 한국에서의 발전 양상

한국 「무산일단운」 의 형식상 가장 큰 특징은 8영체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먼저 8영체 형식의 작품과 8영체가 아닌(이하 비8영체) 작품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자.

III.2.1. 8영체 「무산일단운」 분석

한국의 「무산일단운」 이 유독 8영체 형식의 발전양상을 보이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당시의 8영체 사경시 유행과 관련이 있다. 8영체 사경시는 이미 고려 시대에 지어지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는 문인들 간의 교류 수단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유 시에 상대방의 작품에 대해 화답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형식을 따라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즉, 시로 지었으나 사로 화답할 수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李光胤(1564 ~미상)의 「무산일단운」 사의 각 수 제목은 ‘黃橋牧牛’, ‘南陽勸耕’, ‘石寺朝煙’, ‘西林夕烽’, ‘珠嶺雙松’, ‘岐浦片帆’, ‘漁城宿霧’, ‘聖山驟雨’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題序를 보면 ‘秋月堂八詠¹⁰⁾, 姜參判公信別墅, 在韓山地’(추월당의 팔영, 강참판 공신의 별장은 한산에 있다.)라고 밝혀두어 이 작품이 ‘秋月堂八詠’과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秋月堂八詠’은 『於于集卷一. 詩·銀臺錄』 에 수록된 작품이며 8영체의 오언시이다. 이 작품에 관하여는 아래 ⑥ 기타제재로 한 무산일단운’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각 수 제목이 ‘珠嶺雙松’, ‘岐浦片帆’, ‘黃橋牧牛’, ‘南陽勸耕’, ‘西林夕烽’, ‘石寺朝煙’, ‘漁城宿霧’, ‘聖山驟雨’로 그 대상의 순서는 다르지만 여덟 곳이 모두 이광윤의 것과 동일하다. 이것은 한국에서 「무산일단운」 이 유독 8영체로 발전되어 유행한 대표적 예이며, 8영시와 8영사를 활용한 창화현상은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8영체 「무산일단운」 은 전체 「무산일단운」 사패 형식에 있어 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체제는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작품의 제목과 체제

10) ‘秋月亭八詠’ 姜承旨籤韓山別業, 『於于集卷一 詩·銀臺錄』 에 수록.

를 살펴보기로 하며, 개별 작품의 주제와 내용분석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전고려조선사』에 수록된 8명체 「무산일단운」의 작품 제재는 그 작품의 題序와 題目에서 드러난다. 제재별로 분류해 봤을 때 몇 가지로 귀결되는데, 이를 빈도순으로 분류한 후 작품 및 작가, 작가의 생졸 연도, 여덟 수의 각각의 제목들과 기타 특이사항들을 정리하였다.

8명체 「무산일단운」 작품이 다룬 제재의 빈도는 ‘瀟湘八景’, ‘蔚州八景’, ‘新都八景’, ‘松都八景’, ‘芝圃八景’의 순으로 높으며, 이외에도 ‘淸安八景’, ‘田園樂八景’, ‘秋月堂八詠’, ‘閒中八詠’, ‘冶溪八詠’, ‘蘆溪八詠’, ‘龍山精舍八景’, ‘定州迎春堂八詠’, ‘北樓八詠’ 및 기타 작품들이 있다. 제재의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자.

① 「巫山一段雲·瀟湘八景」

<표 2> ‘소상팔경’을 제재로 한 「무산일단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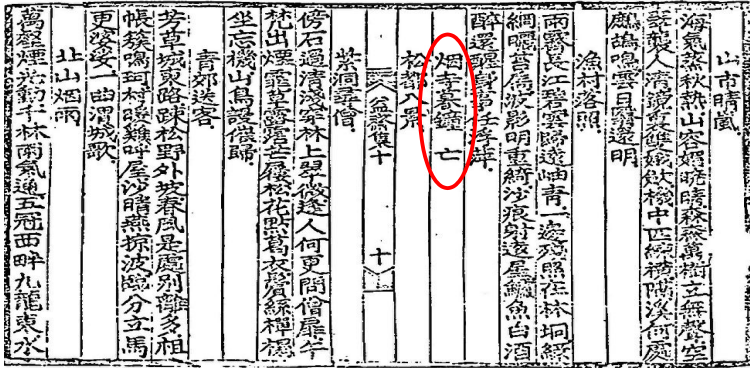
	제목 또는 제사 ¹⁾	작가	각 수의 제목	특이 사항
		생졸 시기		
1	『瀟湘八景』	李齊賢	平沙落鴈, 遠浦歸帆, 瀟湘夜雨, 洞庭秋月 江天暮雪, 煙寺暮鐘, 山市晴嵐, 漁村落照	2組 16수 (1組 8수)
		1287(충렬왕13)– 1367(공민왕16)		
2	次益齊先生 『瀟湘八景』	徐居正	遠浦歸帆, 平沙落鴈, 洞庭秋月, 瀟湘夜雨 山市晴嵐, 江天暮雪, 煙寺暮鐘, 漁村落照	1번과 순서 다름
		1420(세종2)– 1488(성종19)		
3	次益齊 『瀟湘八景』 詩韻	李承召	遠浦歸帆, 平沙落鴈, 洞庭秋月, 瀟湘夜雨 山市晴嵐, 江天暮雪, 煙寺暮鐘, 漁村落照	2번과 순서 동일
		1422(세종4)– 1484(성종15)		
4	『瀟湘八景』	姜希孟	遠浦歸帆, 平沙落鴈, 洞庭秋月, 瀟湘夜雨 山市晴嵐, 江天暮雪, 煙寺暮鐘, 漁村落照	2번과 순서 동일
		1424년(세종6)– 1483년(성종14)		
5	次益齊八景	魚世謙	遠浦歸帆, 平沙落鴈, 洞庭秋月, 瀟湘夜雨 山市晴嵐, 江天暮雪, 煙寺暮鐘, 漁村落照	2번과 순서 동일
		1430(세종12)– 1500		
6	『瀟湘八景』, 效益齊八詠	申光燾	平沙落鴈, 遠浦歸帆, 瀟湘夜雨, 洞庭秋月 江天暮雪, 山市晴嵐, 煙寺暮鐘, 漁村落照	1번과 순서 동일
		1484(성종15)– 1555(명종10)		

7	次益齋先生 「瀟湘八景」 詩韻	南諱眞 1709-1784	遠浦歸帆, 平沙落鴈, 洞庭秋月, 瀟湘夜雨 山市晴嵐, 江天暮雪, 煙寺暮鐘, 漁村落照	2번과 순서 동일
8	謹次益齋先生 「瀟湘八景」	李養吾 1737(영조13)- 1811(순조11)	平沙落鴈, 遠浦歸帆, 瀟湘夜雨, 洞庭秋月 江天暮雪, 煙寺暮鐘, 山市晴嵐, 漁村落照	1번과 순서 동일
9	葛山八景, 倣櫟翁 「瀟湘八景」 調格	權宗洛 1745(영조21)- 1819(순조19)	鶴峰朝日, 龍山暮煙, 草浦白沙, 壁溪蒼松 長郊行客, 夕陽貴僧, 小堂夜雨, 遠岫晴風	葛山八景 을 소상팔경 諷로 읊음
10	家大人次益齋先生 「瀟湘八景」 韻命 賦	南景羲 1748(영조24)- 1812(순조12)	平沙落鴈, 遠浦歸帆, 瀟湘夜雨, 洞庭秋月, 江天暮雪, 煙寺暮鐘, 山市晴嵐, 漁村落照	1번과 순서 동일
11	敬次從先祖益齋先 生 「瀟湘八景」 韻	李秀榮 1858(철종9)- 1880(고종17)	平沙落鴈, 遠浦歸帆, 瀟湘夜雨, 洞庭秋月, 江天暮雪, 煙寺暮鐘, 山市晴嵐, 漁村落照	1번과 순서 동일
12	次 「瀟湘八景」 韻	朴載華 1864(고종1)- 1905(광무9)	平沙落鴈, 遠浦歸帆, 瀟湘夜雨, 洞庭秋月, 江天暮雪, 煙寺暮鐘, 山市晴嵐, 漁村落照	1번과 순서 동일

위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무산일단운·소상팔경」에는 모두 12개의 작품으로 전체 「무산일단운」 사패에서 가장 많은 작품 수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작품이 고려말 이제현의 「무산일단운·소상팔경」을 차운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제현의 「무산일단운·소상팔경」은 각 수의 제목으로 ‘平沙落鴈’, ‘遠浦歸帆’, ‘瀟湘夜雨’, ‘洞庭秋月’, ‘江天暮雪’, ‘煙寺暮鐘’, ‘山市晴嵐’, ‘漁村落照’를 두고 각각 쌍조의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제8수 ‘漁村落照’를 읊은 후에 제9수가 다시 ‘平沙落鴈’부터 읊어나가는 형식으로 총 16수로 구성된 작품이다. 다만, 제16수(두 번째 조의 여덟 번째 수) 제목은 ‘漁村落照’가 아니라 ‘煙寺暮鐘’이며, 작품 내용은 소실되어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원문에 두 번째 조의 제8수인 ‘煙寺暮鐘’는 소실되었다고 수록되었고, 두 번째 조의 나머지 일곱 수 제목들의 순서가 모두 앞 조의 순서와 일치되는 점으로 보아, 소실된 ‘煙寺暮鐘’의 한 수가 앞의 조처럼 여섯 번째였으나, 소실된 이유로 이를 두 번째 조의 제일 끝에 둔 것인지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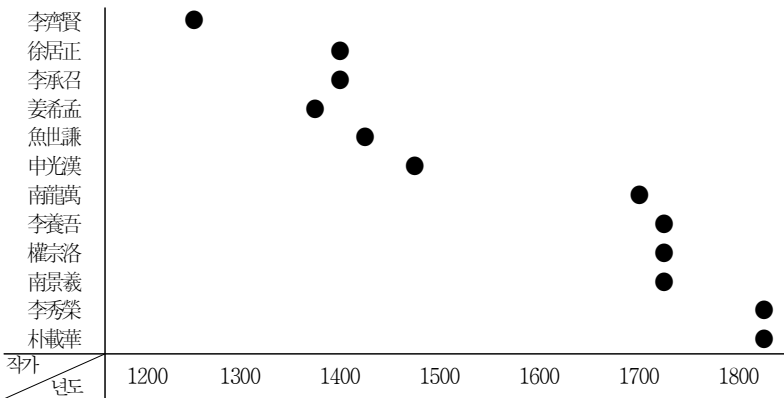
11) 제목일 경우는 기호 「」로 표시하였고, 제서일 경우는 기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림 2> 『益齋亂藁』 제10권 내 수록된 「巫山一段雲·瀟湘八景」의 제16수 소실 부분



「무산일단운·소상팔경」은 대부분 각 수의 앞에서 정경을 읊고 그 정경에 기탁하여 작가의 정서를 표현한 작품들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12개 작품의 「무산일단운·소상팔경」은 고려 말 이제현의 「무산일단운」이 유입된 이후로 바로 유행된 것이 아니라 조선 시대로 오면서 많이 지어진 양상을 보이는데 아래의 표에서 나타난다.

<표 3> 「무산일단운·소상팔경」의 창작 시기



<표3>에서 「무산일단운·소상팔경」이 유입된 이후 최소 60여년이 지난 1400년대에서 1500년대 사이에 유행되었고 약 200여 년 동안 지어지지 않다가

1700년도 이후에 다시 지어지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것은 처음 유행할 당시와 다시 유행하게 될 때의 「무산일단운·소상팔경」의 구성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제현 작품의 제목들의 순서와 조금씩 다른 차이를 보이며 구성되었지만, 영조 집권기에 살았던 이양오 이후로는 이제현의 「무산일단운·소상팔경」과 완전히 같은 제목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이로써, 중국 「무산일단운」 사패를 형식적으로 A, B, C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면, 한국의 「무산일단운·소상팔경」은 그 형식은 같으므로, 이제현의 것을 기준으로 제목 순서의 구성방식에 따라 그 형식을 나눌 수 있다. 이제현의 구성방식을 따르는 ‘이제현’式과 서거정의 구성방식을 따르는 ‘서거정’式으로 나눌 수 있으며 1400년대에는 서거정식이 많고 1700~1800년대에는 이제현식이 많다.

② 「巫山一段雲 蔚州八景」

<표 4> ‘울주팔경’을 제재로 한 「무산일단운」

	제목 또는 제서	작가	각 수의 제목	특이 사항
		생몰시기		
1	蔚州八景	鄭 誦 1309(충선왕1)– 1345(충목왕1)	太和樓 平遠閣 藏春塢 望海臺 碧波亭 白蓮巖 開雲浦 隱月峰	
2	次鄭仲孚 蔚州八景	李 穀 1298(충렬왕24)– 1351(충정왕3)	太和樓 藏春塢 平遠閣 望海臺 白蓮巖 碧波亭 開雲浦 隱月峰	1과 순서 동일
3	次「蔚州太和樓」詩	李 原 1368년(공민왕17)– 1430년(세종12)	太和樓 平遠閣 白蓮巖 碧波亭, 隱月峰 望海臺	6수 구성
4	次雪谷八詠 「巫山一段雲」體	權相一 1679년(숙종5)– 1759년(영조35)	平遠閣 太和樓 藏春塢 隱月峯 碧波亭 白蓮巖 望海臺 開雲浦	1과 순서 다름
5	蔚山八景	孫 侗 1634(인조21)– 1712(숙종38)	平遠閣 望海臺 隱月峰 藏春塢 太和樓 開雲浦 碧波亭 白蓮巖	4와 순서 동일 ※ 제7,8 수 缺
6	雪谷鄭誦題胡人有「鶴 城八景」詩 甚絢麗 用其韻效其體	吳玄默 1834(순조34)– 1906년(고종 43)	平遠閣 望海臺 碧波亭 隱月峰 藏春塢 白蓮巖 制勝亭 太和樓	4와 순서 동일

「무산일단운·울주팔경」은 ‘蔚州(울산, 학성)¹²⁾을 대상으로 鄭誦가 제일 먼저 ‘蔚州八景’을 지었고 이후 문인들이 이에 차운하였다. 李原의 작품은 ‘藏春塢’, ‘開雲浦’를 소재로 한 수들을 제외하고 총 여섯 수로 구성되었다. 제서에 「蔚州太和樓」시에 차운한 것이라고 서에 적혀 있으나, 이것은 첫수(태화루)와 관련된 것이며 이후 ‘太和樓’, ‘平遠閣’, ‘白蓮巖’, ‘碧波亭’, ‘隱月峰’, ‘望海臺’까지 모두 정포의 것에 차운한 것이다. 吳宏默의 「학성팔경」은 ‘개운포’ 대신 ‘계승정’을 읊었다. 「무산일단운·울주팔경」은 고려 말 정포의 작품이 처음 지어지기 시작하여 이원(1368-1430)까지는 소재 순서가 ‘태화루’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17세기 권상일의 「무산일단운」은 ‘평원각’을 첫수 소재로 두고 있고, 이후 18세기 손전과 19세기 오홍묵은 모두 권상일의 것에 차운하였으며, 오홍묵은 ‘개운포’ 대신 다시 ‘계승정’을 읊고 있다. 이러한 양상들은 현재 울산의 ‘태화루, 평원각, 장춘오, 망해대, 벽파정, 백련암, 개운포, 은월봉’ 그리고 ‘계승정’과 같은 경물 혹은 건축들이 고려, 조선시대 수백 년에 걸쳐 명승지로 알려져 문인들에 의해 지속적인 창작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주며, 각 수의 제목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점은 작가들의 명승지 유람 순서에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巫山一段雲·新都八景」

<표 5> 「신도팔경」을 제재로 한 「무산일단운」

	제목 또는 제서	작가	각 수의 제목	특이 사항
		생졸 시기		
1	新都八景, 次三峰鄭公道傳韻	權 近 1352(공민왕 1) -1409(태종 9)	畿甸山河, 都城宮苑, 列曙星拱, 諸坊碁布 東門墩塲, 西門曹白, 南渡行人, 北交駝馬	
2	新都八景, 次三峰鄭先生道傳韻 先生首列八景之目, 各賦「巫山一段雲」體, 獨谷, 陽林皆效碁體而賦之	權 遇 1363(공민왕 12) -1419(세종 1)	畿甸山河, 都城宮苑, 列曙星拱, 諸坊碁布 東門墩塲, 西門曹白, 南渡行人, 北交駝馬	1과 같은 순서
3	新都八景, 次權肅村近韻	崔 演 1503(연산군 6) -1549(명종 4)	畿甸山河, 都城宮苑, 列曙星拱, 諸坊碁布 東門墩塲, 西門曹白, 南渡行人, 北交駝馬	1과 같은 순서

12) 울주(蔚州): 지금의 울산광역시, 고려 초에 지금 이름으로 바꾸었다. 신라 말에 학이 날아와 울었다고 해서 神鶴城이라 불렀다고 하며 戒邊城, 皆知邊, 혹은 火城郡이라고도 한다. 별호는 鶴城이다(『高麗史』 卷五十七, 志卷第 十一, 地理 二).

「무산일단운·신도팔경」은 정도전에 의해 제일 처음 지어졌다.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가 새 왕조의 수도를 정하는 사업에 주동적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한양, 개성, 계룡산, 무악 등 여러 후보지가 거론되다가 마침내 정도전의 주장이 관철되었다(이은주, 69-70). 그는 새 도읍이 결정된 후 왕명에 의하여 궁전과 궁문, 그리고 도성문의 이름을 짓고, 도성 내외의 49坊의 이름도 지었으며, 더불어 「新都八景詩」를 지어 바쳤다고 한다.¹³⁾ 정도전의 「신도팔경시」가 「무산일단운·신도팔경」의 연원이지만 정도전의 「신도팔경시」는 전해지지 않으며 그의 시를 차운한 권근, 권우의 「무산일단운·신도팔경」 제서에 ‘그의 「무산일단운」 체의 「신도팔경시」에 차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정도전의 것이 연원이다. 이후 최연은 다시 권근의 「무산일단운」에 차운하여 ‘신도팔경’을 읊었다. 앞서 살펴본 「무산일단운·소상팔경」이나 「무산일단운·울주팔경」은 각 제목들의 순서가 작가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배열됨을 보았다. 그러나 「무산일단운·신도팔경」은 ‘畿甸山河’, ‘都城宮苑’, ‘列署星拱’, ‘諸坊恭布’, ‘東門教場’, ‘西江漕泊’, ‘南渡行人’, ‘北郊牧馬’의 배열순서가 변하지 않는데, 이것은 신도를 정하는 과정의 일련된 순서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수도의 터를 잡고, 성곽을 짓고, 부서를 설치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성문을 설치하며, 교역의 항구를 정하고, 백성들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과 이런 수도를 지키는 군사의 모습들을 일련 되는 순서로 묘사할 수밖에 없다.

개국 공신 정도전이 새로운 왕조를 창건하여 왕실과 백성에게 天命의 뜻임을 밝히고 찬양하는 데 「무산일단운」이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그 당시 「무산일단운」과 8영체의 형식이 문인들 사이에서 매우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巫山一段雲·松都八景」

<표 5> ‘송도팔경’을 제재로 한 「무산일단운」

	제목 또는 제서	작가	각 수의 제목	특이 사항
		생졸 시기		
1	松都八景	李齊賢	紫洞尋僧, 青郊送客, 北山聽雨, 西江風雪, 白岳晴云, 黃柳晚照, 長湍石壁, 朴淵瀑布	李穡의 시가 있음
		1287(충렬왕13)~1367(공민왕16)		

13) 『三峰集』 (한국고전종합 DB, 2020.7.20).

2	北樓八詠	黃胤錫	白嶺晴風, 西山爽氣, 雲臺看花, 天街步月 隱灘臨流, 古亭賞楓, 淸晝散帙, 靜夜理琴
		1729(영조 5)– 1791년(정조 15)	

이제현의 「무산일단운·송도팔경」은 16영체이나 여덟 개의 제재 ‘紫洞尋僧’, ‘靑郊送客’, ‘北山煙雨’, ‘西江風雪’, ‘白岳晴雲’, ‘黃橋晚照’, ‘長湍石壁’, ‘樸淵瀑布’를 각각 두 번씩 읊은 구성으로 앞서 살펴본 「무산일단운·소상팔경」처럼 같은 소재를 두 번씩 읊은 구성이다.

이제현의 「무산일단운·송도팔경」은 팔영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근거를 찾아보면, 첫째, 『益齋亂稿』卷第三¹⁴⁾에는 8영체 7언시의 「憶松都八詠」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작품의 제목 역시 ‘鶴嶺春晴’, ‘龍山秋晚’, ‘紫洞尋僧’, ‘靑郊送客’, ‘熊川禊飲’, ‘龍野尋春’, ‘南浦煙蓑’, ‘西江月艇’으로 그의 「무산일단운·송도팔경」과 유사하다. 둘째, 이제현의 「무산일단운·소상팔경」을 읽고 이에 대한 감상을 읊은 李穡의 7언시 「讀益齋先生松都八詠」¹⁵⁾이 존재한다. 이 작품은 이제현의 松都八景을 읽고 난 후의 감상을 담은 시로, 끝 구 ‘只是巫山一段雲(이것은 다만 무산일단운 이로다)’는 이제현의 「무산일단운·송도팔경」에 대한 감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시와 사가 서로 창화하는 현상은 이후에도 여러 번 나타난다. 따라서 이제현의 「무산일단운·송도팔경」을 비롯한 많은 「무산일단운」들이 팔영시와 연관이 깊다. 黃胤錫(1729–1791)의 「무산일단운·북루팔영」, 역시 嘯嘯先生 金用謙(1702–1789)의 부탁을 받고 ‘北樓八詠’을 노래한 것이라 제서에서 밝히고 있으며, 이제현의 「무산일단운·송도팔경」에 맞추어 지은 것이다.

「무산일단운·송도팔경」은 사의 형태로는 두 작품밖에 보이지 않지만, 당시의 팔경시와 직접적인 관련을 보이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팔경문화의 유행과 함께 팔영시가 지어지고 있었고, 문인들의 교류에 있어 8영체는 시와 사를 구

14) 『韓國文集叢刊』, 『益齋亂稿卷』第三·詩(한국고전종합DB, 2020.07.18).

15) 『韓國文集叢刊』, 『牧隱詩藁』卷七·詩(한국고전종합DB, 2020.07.18.).

益老文章迥出群。馳煙走海勢法云。
松都八景牢籠盡。只是巫山一段雲。

익재 선생의 문장은 출중하여, 대해로 질주하듯 그 기세가 광대하도다.
송도팔경을 한테 다 모아 두었으니, 이는 다만 巫山一段雲이로다.

분하지 않은 형태로 서로 창화하였으며 이는 당시 8영체의 시와 사가 함께 발전하였다는 중요한 문학 형상을 보여준다.

⑤ 「巫山一段雲·芝圃八景」

<표 7> ‘지포팔경’을 제재로 한 「무산일단운」

	제목 또는 제서	작가	각 수의 제목	특이 사항
		생몰 시기		
1	芝圃八景 「巫山一段雲」體兼禁題體	鄭榮邦	龍鼎夜雨, 煙寺暮鐘, 山店朝嵐, 河橋晚雪 長岫牧篋, 曲浦漁燈, 平沙落鴈, 廣津維舟	
		1577(선조10) - 1650년(효종1)		
2	次鄭仁門榮邦 ‘芝圃八景韻’ 「巫山一段雲」體	柳 稷	龍鼎夜雨, 煙寺暮鐘, 山店朝嵐, 河橋晚雪 長岫牧篋, 曲浦漁燈, 平沙落鴈, 廣津維舟	
		1602(선조 35) - 1662년(현종 3)		

「무산일단운·지포팔경」은 1500년대 이후에 지어졌으며, 지포¹⁶⁾는 지금의 예천 지역으로 石門 鄭榮邦이 태어난 곳이다. 이곳에는 광해군 1년에 지어진 醴泉石門宗宅¹⁷⁾이 있다. 따라서 정영방이 지포에 거주하며 주위 정경을 「무산일단운」 사패 8영체의 형식에 전사하였고, 이후 류식도 정영방의 작품에 차운하였다. 현재 예천시 홈페이지에서 ‘예천석문종택’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예천석문종택’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며, 본 연구가 이에 「무산일단운·지포팔경」으로써 그 문학적 가치와 더불어 문학 지리학적 가치를 제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무산일단운」 사패는 이제현의 8영체 「무산일단운·소상팔경」을 필두로 고려, 조선에 걸쳐 ‘울주팔경’, ‘신도팔경’, ‘송도팔경’, ‘지포팔경’ 등의 다양한 제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전사가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팔영시와 창화되는 양상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다양한 대상으로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 그 형식은 「무산일단운」 사패 C식(44자)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

16) 지포(芝圃): 지금의 예천군 지보면 도장리(예천시, <https://www.ycg.kr/open.content>, 2020.07.18).

17)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포길 83(도장리), 문화재 지정번호,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92호(네이버 지식백과, 「예천석문종택 [醴泉石門宗宅]」,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07.20).

하였다. 이외에도 ‘淸安八景’, ‘田園樂八景’, ‘秋月堂八詠’, ‘閒中八詠’, ‘冶溪八詠’, ‘蘆溪八詠’, ‘龍山精舍八景’, ‘定州迎春堂八詠’, ‘北樓八詠’ 및 그 외 다양한 제재의 작품들이 있으며,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⑥ 기타 제재의 「巫山一段雲」

<표 8> 기타 제재로 한 「무산일단운」

번호	제목 또는 題字	작가 생몰 시기	각 수의 제목	특이 사항
	1	淸安八景		
2	田園樂八景	申晉運 1849(헌종15)- 1922년	山亭觀稼, 水田農諷, 石逕樵歌, 江郊牧笛 春圃香蔬, 秋園黃果, 榆社春酒, 松燈夜話	田園 적 제 재
3	八景, 「巫山一段雲」 格	申昌朝 1753(영조29)- 1833(순조33)	過嶺閒雲, 投林倦鳥, 遠坡牧笛, 近浦漁歌 石逕行商, 風橋歸客, 東林返照, 西壁掛瀑	田園 적 제 재
4	秋月堂八詠姜 參判公信別墅 在韓山地	李光胤 1564(명종19)- 미상	黃橋牧牛, 南陽勸耕, 石寺朝煙, 西林夕烽 珠嶺雙松, 岐浦片帆, 漁城宿霧, 聖山驟雨	‘秋月 亭八 詠’과 제목 유사
5	閒中八詠	李衡祥 1653(효종 4)- 1733년(영조 9)	神倦卽寢, 氣調始興, 機事不萌, 俗禮自簡 案多眞蹟, 門無雜蹤, 逸樂忘貧, 快活當貴	
6	冶溪八詠	李弘有 1588(선조 21)- 1671년(현종12)	命峯霧月, 道洞新花, 松村暮烟, 妙谷朝霞 樂山飛雪, 敬峴驟雨, 禾寺樵僧, 巨川釣叟	
7	蘆溪八詠 又次 「巫山一 段雲」 體	鄭 沆 1654년(효종5)- 1666년(숙종 22)	三聖晴雲, 舞鶴煙嵐, 東岑曉旭, 礪峴落照 溪堂常春, 佛庵暮鐘, 石徑歸僧, 帶雨春耕	
8	龍山精舍 ¹⁸⁾ 八景, 長短四律	丁希孟 1536(중종31)- 1596년(선조29)	宅邊柳, 籬下菊, 窓外蕉, 泉底芹 井上桐, 軒前梅, 園中栗, 屋後松	
9	定州迎春堂八 詠	崔 演 1500(연산군6)- 1549년	原田基布, 里閭星羅, 出水新荷, 倚牆稚柏, 庭畔翠梧, 階前紅藥, 嚙柳黃鶯, 出塘碧草,	

10	次量靜任 夏寒亭/詠	黃應奎	烽山秋月, 聖峰春花, 凝寺曉鐘, 北村暮煙 滄深落照, 蟠洞驟雨, 鐵岾晴風, 白山霧雪
		1518(중종13)- 1598년(선조31)	

기타 제재로 한 「무산일단운」은 모두 1400년 이후에 나타난다. 이 작품들은 먼저 팔영시와 관련이 있는 것들과 제재가 수도와 명소를 벗어나 한국 지방을 대상으로 한 것들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한국 지방을 대상으로 한 사들부터 살펴보자. 먼저 진의귀의 「무산일단운·청안팔경」은 충북 괴산의 청안¹⁹현 일대가 배경이다. 김용남의 연구에 의하면 1405년 청안은 청당현과 도안현이 합쳐진 이름으로, 제목에 보이는 ‘清河’, ‘龔舍’, ‘亂谷’, ‘龍門’, ‘礮溪’, ‘龜石’, ‘椒嶺’, ‘柵城’은 모두 지명으로 옛 청당현 지역이라고 한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 ‘진의귀의 청안팔경을 한국 연장경물사를 정착시키며 다음 시대로 이어준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김용남, 332-333). 진의귀의 작품 전에 이미 이체현(1287-1367)과 정포(1309-1345)를 비롯하여 여러 연장체 경물사 형태가 있었지만, 수도 지역을 벗어난 지방을 제재로 한 작품으로는 최초의 것이므로 이후 연장 경물사의 지방 확대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본 것이다. 비록 진의귀의 사에 차운한 시나 사는 없지만 최초의 지방을 대상한 연장 경물사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앞서 살펴본 수도나 명소가 아닌 지방을 제재로 한 「무산일단운·울주팔경」과 「지포팔경」은 실제로 1400년대 이후에 나타난다. 우리는 정포의 「무산일단운·울주팔경」이 1300년대에 지어졌고 이에 비슷한 시기에 이곡, 이원이 정포의 것에 차운한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정포의 「무산일단운·울주팔경」은 이체현 이후 한국의 지방을 제재로 하는 연장경물사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이곡, 이원으로 이어지다가 이후 약 300여 년 동안 지어지지 않고 이후인 1600년대에 다시 권상일과 손전, 오형묵에 의해 이어지기 때문이며 또한, 권상일(1679-1759) 이후의 「무산일단운·울주팔경」들은 정포의 제목 순서를 따르지 않고, 모두 권상일의 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포의 「무산일단운·

18) 상주시 낙동면 양진당길 17-40, 지방문화재자료 제438호(2003.04.14. 지정)(상주시 홈페이지, <https://www.sangju.go.kr/tour/sights>, 2020.07.01).

19) 충북 괴산 청안현(한국 고전 종합 DB; 네이버 지식백과, 「청안팔경」,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81121&cid=49354&categoryId=49354>, 2020.07.01).

울주팔경」은 이제현 이후 한국의 지방을 제재로 하는 연장경물사의 새로운 시도로, 그리고 진의귀의 것은 본격적 창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정연의 「무산일단운·노계팔영」 역시 지방의 정치를 읊은 작품이며,²⁰⁾정희맹의 「무산일단운·용산정사팔경」은 지금의 상주시 낙동면의 「龍山精舍」²¹⁾를 제재로 한 것이다. 「용산정사」는 현재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를 제재로 한 「무산일단운·용산정사팔경」을 고찰해 냄으로써 문화재와 더불어 문학지리학에서의 가치 또한 밝힐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최연의 작품은 정주의 「영춘당」²²⁾을 제재로 하고 있는데, 정주의 「영춘당」은 평안북도 청천강 부근 일대와 義州 「統軍亭」 사이에 위치한 곳이며, 이 지역 일대의 경관을 제재로 한 것이다.

두 번째, 팔영시와 관련되는 작품들을 살펴보자. 먼저 이광윤의 「무산일단운」은 그 제서에 「秋月堂八詠, 姜參判公信別墅, 在韓山地(추월당팔영, 강참판공신별서, 한산 땅에서)」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柳夢寅의 문집 『於于集卷一·詩·銀臺錄』에 수록되어 있는 8영체 오연율시인 「秋月亭八詠」²³⁾과 각 수 제목이 「珠嶺雙松」, 「岐浦片帆」, 「黃橋牧牛」, 「南陽勸耕」, 「西林夕烽」, 「石寺朝煙」, 「漁城宿霧」, 「聖山驟雨」로 일치한다. 「무산일단운」 8영체 시와 시가 관련된 또 하나의 예이다. 이흥유의 작품은 승정원년(1628년)에 친구 申之益(1588-1649)에게 써 준 것으로, 7언 10구의 시 「奉呈養一堂主人」²⁴⁾와 연작이라고 한다.²⁵⁾ 8영체의 시와 사의 관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이다. 또, 황응규의 「무산일단운」은 朴重甫 承任(1517-1586)의 「夏寒亭」²⁶⁾八詠에 차운하였다고 그 제서에 밝히고 있다. 박승임이 퇴거 후 영주에 머무는 동안 그곳 정자의 이름을 여름에도 시원하다하여 「하한정」이라 지었다고 한다.²⁷⁾ 단, 박승임의 「하한정 팔영」은 문헌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竹牖 吳滢(1540-1617)선생의 『竹牖集』 권1에 「하한정」을 대상으로한 10수의 5언시가 있는데²⁸⁾, 10수의 각 제목이 황응규의

20) 「노계」는 박인로(1561~1642)선생의 호이자 문집 이름이다. 노계 선생의 연대와 정연의 생몰 연대인 1654년~1696년과 크게 차이 나지 않으므로 노계 박인로의 작품과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21) 상주시 낙동면 양진당길 17-40, 지방문화재자료 제438호(2003.4.14. 지정)(상주시 홈페이지, <https://www.sangju.go.kr/tour/sights>, 2020.07.18).

22) 허경진, 조혜의 연구에 의하면 申濡 1636년 문과 과거급제 이후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쓴 『해사록』과 『연대록』이 『韓國文集叢刊』에 수록되어 있다. 우리는 『연대록』 내 신유의 연행 노정에서 정주 「영춘당」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그 노정은 「한양 → 황해도 金川 → 猪灘 → 箕城 → 淸川江 → 定州 迎春堂 → 義州 統軍亭 → 鴨綠江」의 순서이다(허경진, 조혜, 9).

23) 柳夢寅의 문집 『於于集卷一·詩·銀臺錄』 내 「秋月亭八詠」

것과 유사하다²⁹⁾. 이들은 모두 이항의 문하생이며 생졸 연대가 비슷하므로 세 사람이 서로 시와 사로 창화한 것이다.

이외에, 특정 경물이 아닌 일반 서정을 제재로 한 작품으로 이형상의 작품과 전원적 소재를 다른 신진운, 신창조의 작품이 있다.

<p>【殊嶺雙松】</p>	<p>嶺上兩株松，落落干青天。 何如夷與齊，對立首陽巔？ 儵然北麓夢，丈人俱蒼髯。 試看歲寒後，吾與子成三。</p>	<p>【岐浦片帆】</p> <p>莫道浦名岐，元來一水分。 朝宗萬派同，河、濟安足云？ 悠悠一片帆，爾是無心者。 何往不通津？揚扆非夫也。</p>
<p>【黃橋牧牛】</p>	<p>君家髮黃童，解制大黃牛。 倒騎牧黃橋，衰草迷霜秋。 遠望不見，怒嗔何處眠？ 乘風忽弄笛，指點溪之邊。 孤嘯晚依柱，一點明西林。</p>	<p>【朝陽勸耕】</p> <p>地名似隆中，田畝少諸葛。 僮僕替躬耕，亦足供計闕。 春林布穀鳴，努力勸學趾。 堪笑起三顧，當時成何事？ 世尊坐高龕，神龍闕古井。 靈焰或出寶，寶光或生頂。 莫是掛白練，疑有張翠傘。 忽聞木魚動，始覺居僧飯。 雲陣忽橫江，顛風窓自拓。 寒聲挾爽氣，前山過雨足。 隱若翠屏風，千匹素絹拖。 須與彩虹消，山光看益多。</p>
<p>【西林夕烽】</p>	<p>南起憂邊憶，北送戀關心。 黃昏不誤期，耿耿如有信。 一瞬撫千里，仍得觀心印。 昨日有漁城，今日無漁城。 偏掩半漁城，中割分漁城。</p>	<p>【石寺南望】</p>
<p>【漁城宿霧】</p>	<p>山鬼戲主人，闔關殊態呈。 卷之界有昊，日高清風生。</p>	<p>【望山驟雨】</p>

24) 雨過前村草色新。滿園桃柳共爭春。携琴獨坐溪邊石。曲奏峨洋與更眞。石上彈琴
蒼竹猗猗出短牆。清風搖翠映溪堂。招致園翁何所載。着基終日坐藤床。竹間闌基
窓外寒梅已發花。自憐疎影爲誰斜。嗅香滲入吟脾冷。倘是西湖處士家。風前嗅梅
風生虛闌月生初。點綴浮雲暗又明。寓興難堪清意味。吟詩聊可見心情。月下吟詩
一生於世領清貧。閑卧園林任送春。昨夜前山微雨過。穿雲采采蕨芽新。雲裏采蕨
寥落空庭雨乍晴。春禽多事百般鳴。但得身閒隨處樂。栽花隙地播芬馨。雨後栽花
數畝山南有石田。躬耕種豆雨雲邊。天教樂事輸吾輩。肯向人間取次傳。山南種豆
萬事人間我自閑。釣魚溪北弄微瀾。日暮欲歸衣半濕。綠烟和雨暗前山。溪北釣魚
治圃長年手自鋤。滿畦甘草也扶疎。栽培擬作閒中業。要識神農劑藥初。圃中鋤藥
露竹風蟬昨夜霜。碧雲秋色滿仙鄉。籬邊燦燦開甘菊。欲採黃英泛酒觴。籬邊採菊

(한국고전종합DB, 2020.07.18)

- 25) 『韓國文集叢刊』 내 『遜軒集』 卷二(한국고전종합DB, 2020.07.18).
- 26) 영주시 한정마을에 위치(영주시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yeongju_city, 2020.07.22).
- 27) 「조선 중기 영남의 문호 소고 박승임(朴承任) 선생」 (『영주신문』 2017.06.15, <http://www.yj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00>, 2020.11.19).
- 28) 『竹圃集』 卷一(한국고전종합DB, 2020.07.18.).
- 29) 황응규, 박승임은 모두 생존연대가 비슷하며 李滉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므로 이들이 '하한정'을 공통 소재로 두고 시와 사로 서로 창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하한정'을 제재로 한 시와 사 작품들의 내용과 주제에 관해서도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III.2.2. 8영체 한국 「무산일단운」 작품 특징

이상으로 본 연구는 중국 「무산일단운」 사패에 전사한 한국 「무산일단운」 중 먼저 형식으로 8영체 형식과 비8영체형식을 구분하였고, 다시 8영체 작품들을 제재별로 분류한 후, 빈도율이 높은 순대로 연도에 따라 정리 및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8영체 「무산일단운」 사패가 형식이 모두 같고, 제재와 시대에 따라 구분해 볼 때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다작 된 순서는 ‘소상팔경’, ‘울주팔경’, ‘신도팔경’, ‘지포팔경’이며, 그 외 각 지방의 명소를 제재로 하여 읊은 것들로 나누어진다. ‘소상팔경’을 제재로 한 최초 작품은 이제현의 것이며, ‘울주팔경’은 정포, ‘신도팔경’은 정도전의 시가 차운 대상이 되지만 전해지지 않고 권근과 권우의 작품의 서에서만 밝히고 있으며, 마지막 ‘지포팔경’은 정영방의 것이 처음이다. 이들은 모두 첫 작품의 것을 차운하는 경우가 많고, 당시 유행하던 사경 팔영시와 창화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문인들이 창화할 때 詩로 먼저 썼으나 詞로 화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문인들이 당시의 시와 사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창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한국의 팔영시와 팔영사의 발전은 따로 나누어 연구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국의 「무산일단운」은 1400년대를 이후에는 제재 선택을 수도 및 명소에 그치지 않고 한국 각 지방의 특정 장소나 건물로 확장하였다. 고려말에서 조선 초까지는 ‘소상팔경’이나 ‘신도팔경’ 과 같이 수도나 유명한 곳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조선 중기 이후로 문인들이 기거하던 각 지방의 명소 또는 주거지 주변을 읊음으로써 공간과 제제상의 변화를 보였다.

IV. 결론

한 나라의 문학이 다른 나라의 문학에 영향을 줄 때, 모방의 형태로만 유행된다면 그것은 영향받은 자국의 문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영향을 주는 수여자의 문학 형태를 수신자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재해석하거나 다른 방식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정착시켜 갈 때 변용과 창작의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무산일단운」 사패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무산일단운」 이 한국에서 8영체 연장 사경사의 형태로 발전하며, 이후에 형식과 체재, 주제 면에서 한국적 문학 양상을 낳았다. 특히 중국 당송시기에 발달한 사문학이 한국에서 고려말 이제현의 「무산일단운」 이후 고려와 조선의 많은 문인이 애용하였던 근거들이 한국문헌에서 나타나고 있음이 그 단초가 된다. 본 연구는 「무산일단운」의 형식의 변화에 집중하여 8영체 사로 정착한 과정을 고찰하였으며, 비8영체 「무산일단운」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 사패로 창작한 사 작품의 내용에 관한 분석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전용어 시소러스, <http://thesaurus.itkc.or.kr>, 2021.02.16.
- 김건곤, 「고려 문인들의 팔경문학 향유에 대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34, 2015.
- 김영운, 「詩唱의 音樂的 研究」, 『한국음악연구』, 37, 2005.
- 김용남, 「陳義貴‘淸安八景’詞의 文學적 형상」, 『어문연구』, 44. 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6.
- 김태환, 「조선 중기 영남의 문호 소고 朴承任선생」, 『영주신문』, 2017.06.15, <http://www.y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00>, 2020.11.19.
- 김현주, 백연주, 「『敦煌曲校錄』 內 定格聯章 抄錄 寫本 고찰」, 『中國語文學』, 83, 2020.
- 김현주, 윤혜지, 「고려 사인의 중국사 수용양상고찰 -李穀詞를 중심으로-」, 『中國研究』, 42, 2008.
- 김현주, 이혜수, 「高麗詞의 中國詞수용양상 -형성기 사와 작가 중심으로-」, 『中國研究』, 45, 2009.
- 김현주, 한주경, 「고려사인의 중국사문학 수용양상고찰 -이규보, 이승휴, 이제현, 민사평, 성석린의 증답사 중심으로」, 『中國研究』, 43, 2008.
- 류기수, 『全高麗朝鮮詞』, 華東師範大學校出版社, 2019.
- _____, 「明清 時期 「巫山一段雲」의 形式 考察」, 『중국학연구』, 74.

- 2015.
- _____, 『歷代韓國詞總輯』, 한신대학교출판부, 2006.
- _____, 「중국과 한국의 「巫山一段雲」 사 연구」, 『중국학연구』 8, 1993.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 <http://www.heritage.go.kr>, 2021.02.16.
- 밀양시, 「문화재명: 竹院齋舍」, 『밀양시 홈페이지』, 2020.02.15, <https://www.miryang.go.kr/tur/EgovCultureDetail.do;jsessionid=8EF9273CE112102161919EC0525EC81A.was1?mnNo=30304020000&searchKeywordTo=502&nmtIdx=987&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 2020.07.22.
- 박영순, 오대용, 「『巫山一段雲』 與韓國詞創作」, 『中國語文論叢』, 第48輯, 2011.
- 백정희, 「한국사문학 소고 -고려의 사-」, 『중국학논총』, 11, 1995.
- 상주시, 「상주용산정사」, 『상주시 홈페이지』, 2020.07.18, <https://www.sangju.go.kr/tour/sights/detail.tc?mn=2887&pageSeq=2914&pageIndex=1&idx=520091&fromList=1¶mIdx=TOU007000000010&skin=gallery&searchCondition=1&searchKeyword=>, 2020.07.22.
- 안장리, 「瀟湘八景 수용과 한국팔경시의 유행 양상」, 『한국문학과 예술』, 13, 2014.
- _____, 『한국의 팔경문학』, 집문당, 2002.
- 양문생저, 이태형역, 『中國詞譜의 理解』, 學古房, 2018.
- 영주시 SNS홍보단, 「영주 여행 소고 박승임 선생의 선비 정신이 깃든 한정마을 하한정」, 『영주시공식블로그』, 2019.10.30, https://blog.naver.com/yeongju_city, 2020.07.22.
- 유영혜, 「19세기 사(詞)문학 유행의 배경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 23, 2011.
- 윤재환, 「조선조 시단의 중국 시학 수용 양상 고찰」, 『국문학논집』, 22 2013.
- 이상균, 「朝鮮時代遊覽文化研究」, 박사학위논문, 강원대, 2013.
- 이승매, 『韓國詞文學通論』, 成均館大學出版部, 2006.
- 이은주, 「조선 초기 ‘新都八景’시의 제작과 성격」, 『한국한시연구』, 22, 2014.

- 장병창, 「예천982:도은정 도장리」, 『예천군 홈페이지』, 2020.06.28,
[https://www.ycg.kr/open.content/ko/participate/free.bulletin/?i=73955
&p=38](https://www.ycg.kr/open.content/ko/participate/free.bulletin/?i=73955&p=38), 2020.07.18.
- 정운채, 「瀟湘八景을 노래한 시조와 한시에서의 경의 성격」, 『국어교육』, 79,
1992.
- 차주환, 『중국사문학논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2.
- 차주환, 「한중사문학의 비교연구 - 한국 최초의 사작품을 중심으로」, 『비교문
학 및 비교문화』, 1979.
- 한국고전종합 DB, www.db.itkc.or.kr, 2021.02.16.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0.11.19.
- 허경진, 조혜, 「신유의 일본과 중국 두 나라 인식에 대한 비교연구」, 『冽上古
典研究』, 55, 2017.
- 金度燃, 「論唐宋詞在韓國的傳播與接受」, 碩士學位論文, 蘇州大學, 2011.
- 蕭統編, 李善註, 『文選』, 中華書局, 1977.
- 安向梅, 「宋詞與朝鮮前期詞的比較」, 碩士學位論文, 延邊大學, 2004.
- 吳藕汀 외, 『詞調名辭典』, 上海書店出版社, 2005.
- 王進明, 「韓國巫山段雲詞研究」, 『延邊教育學院學報』, 第33卷, 第5期, 2019.
- 王進明, 『朝鮮詞文學創新與民族特色』, 中央民族大學校出版社, 2017.
- 王奕清 외, 『詞譜』, 中國書店, 1979.
- 龍榆生, 『唐宋詞格律』, 海古籍出版社, 1978.
- 劉介民, 『比較文學方法論』, 天津人民出版社, 1993.
- 李寶龍, 『韓國高麗詞文學研究』, 人民出版社, 2011.
- 李寶龍, 高雲龍, 「李齊賢在朝鮮詞史上的地位和影響」, 『東北亞文化研究』,
2009.
- 李小榮, 『敦煌變文』, 甘肅教育出版社.
- 張曉寧, 「宋詞題序研究」, 博士學位論文, 陝西師範大學, 2009.
- 趙晶晶, 「北宗詞對李齊賢詞創作的影響」, 碩士學位論文, 延邊大學, 2013.

Kim, Hyun Ju & Baek, Youn Ju (2021)

A Study on the Acceptance Pattern of ‘the tunes for Chinese Ci poetry 『Wushan Yiduanyun』 ’ in Korea: Focusing on the Eight Chapter Style

Foreign Literature Studies, 81, 61–92.

Abstract

Among the tunes for Chinese Ci poetry, 『Wushan Yiduanyun』 was not very popular, but since it was introduced to Koryo Dynasty, it has become so popular that about 90 writers have built more than 500 works in Koryo and Joseon Dynasty. In addition, it is unique in terms of acceptance in Korea that more than half of Korea's 『Wushan Yiduanyun』 is 'Realistic Landscape Poetry' of 'Chapter-after-chapter Ci' while China's 『Wushan Yiduanyun』 does not have the 'eight Chapter style' . Lee Jehyun's 『Wushan Yiduanyun』 was the first 'eight Chapter style Ci' to appear in Korea, Later, it became very popular among dynasty Koryo and Joseon's writers. However, this kind of format, the 'eight chapter style', was not the only format to have been utilized, as shown in the example of the 'Not eight chapter style', which derived from the root of the first style, while having opposite characteristics. Furthermore, in terms of content it started with 'Realistic Landscape Poetry' and then expanded to include various contents. This research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research in the field of literary geography, which studies geographical content and topics recited by Korea's 『Wushan Yiduanyun』 .

[Wushan Yiduanyun, Korean Ci, Chapter-after-chapter Ci, eight chapter style]

예시언어(Examples in): Korean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Chinese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Secondary/College

논문투고일: 2021년 1월 03일

심사완료일: 2021년 1월 29일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5일